앵커 4-5 안서 유니브시티 스페이스 사업 2026 제2회 안서 유니브시티 청년 공연제 참가작

주관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전공 무대미술전공

충청남도 천안시 유니브시티 천안 UNIV+CITY CHEONAN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The Good Doctor



극 닐 사이먼
Neil Simon

번역 박준용

연출 노유림
드라마투르기 이은재
분장 김효림
무대감독 조효연 김해윤 이채희
기획 이채은 유채연 이사민 임수현

지도교수 임형진

무대디자인 송조은
의상디자인 남수정
조명디자인 문사랑
음향디자인 김고은
소품디자인 박소정

무대 어시스턴트 김서하 진희수
의상 어시스턴트 고윤서 박시진
조명 어시스턴트 김수연 신다현
음향 어시스턴트 홍예슬
소품 어시스턴트 장현지

무대감독 박준형 심서연
기획 김효은

지도교수 박진원 김가은

출연
김나영
김소현
김효림
박예희
박준성
이수아
이준기
장윤빈
전하진
최승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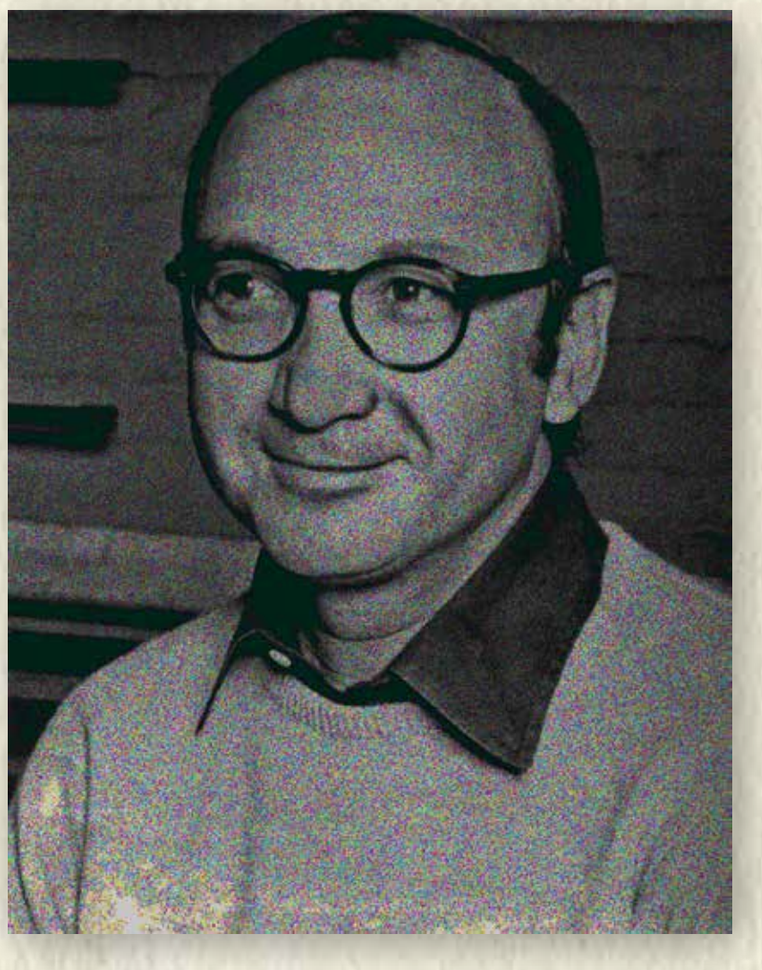
2026 11. 29 - 12. 01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계당관 중극장

11. 29. SUN 14:00 | 11. 30. MON 18:00 | 12. 01. TUE 18:00

상명대학교 연극전공 공연제작실습 II & 상명대학교 무대미술전공 공연제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작가 소개 I



닐사이먼
(Neil Simon, 1927~2018)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 코미디를 통해 위안을 얻었던 그는 군 복무 중 병영 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대 후 라디오 및 텔레비전 코미디 작가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이후 연극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희극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1961년 첫 장편 희곡 〈나팔을 불어라〉를 발표한 이후 〈희한한 한 쌍〉, 〈스위트 채리티〉
등 다수의 흥행작을 선보였다. 대중적인 성공과 함께 부정적인 평을 받기도 했으나.
자전적 요소를 담은 '브라이튼 3부작'을 통해 문학적 깊이를 인정받았다.
1991년에는 〈용커스에서 길을 잃다〉로 퓰리처상 희곡 부문과 토니상 최우수 연극상을
수상했다.

사이먼은 가족 간의 갈등과 인간관계,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통을 희극적으로 풀어내며 자
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삶의 비극과 희극을 함께 그려 낸 그는 2018년 8월 26일,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작가 소개 II



안톤체호프
(Anton Chekhov, 1860~1904)

안톤 체호프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다.
오늘날에는 〈갈매기〉, 〈세 자매〉, 〈벚꽃 동산〉 등의 희곡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의 문학적 출발점은 짧고 익살스러운 단편소설이었다.

러시아 타간로크에서 태어난 체호프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돕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학업과 병행하며 유머 잡지와 신문에 단편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인물과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당대 러시아 사회 문제를 풍자했다.
이후 인간의 심리와 삶의 모순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단편소설의 문학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1884년 의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진료와 집필을 병행했다. 그의 작품은 삶의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현실을 관찰하고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방식은 희곡으로도 이어져 인물의 일상과 내면의 갈등에 주목하는 극작법을 발전시켰으며, 현대 사실주의 연극에 영향을 미쳤다.
오랫동안 폐결핵을 앓던 체호프는 1904년, 4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연관성

19세기 러시아의 안톤 체호프와 20세기 미국의 닐 사이먼은 서로 다른 시대와 나라를 살아갔지만, 두 작가의 삶에는 닮은 지점이 있다.
<굿 닥터>는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발견하는 두 작가의 시선을 함께 보여 준다.

체호프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가계를 돕기 위해 유머 단편을 썼다.
사이먼은 아버지의 잦은 부재와 가정불화 속에서 코미디로 위안을 얻었다.
신문과 잡지에 짧은 글을 발표한 체호프와 라디오 · 텔레비전 코미디 작가로 출발한 사이먼은 평범한 인물의 실수와 갈등을 희극의 소재로 삼았다.

체호프의 단편은 관료주의와 계급의식을 풍자하면서도 사소한 사건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냈다. 사이먼 역시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실패를 웃음으로 풀어냈다. 1973년 초연된 <굿 닥터>는 사이먼이 체호프의 단편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두 작가의 희극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비웃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속에서 삶의 여러 얼굴을 발견하게 한다.

작품 소개

〈굿 닥터〉는 닐 사이먼이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들을 무대 위의 여러 이야기로 재구성한 옴니버스 희극이다.

작품은 19세기 후반 러시아를 배경으로, 독립적인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이야기는 '작가'라는 인물에 의해 연결된다. 작품 구조의 특성상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한다. 평범한 인물들의 소란스러운 일상을 차례로 펼쳐 보이며, 인간의 삶과 애환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체호프가 일상 속에서 발견한 인간의 허영과 두려움, 사회의 부조리는 사이먼 특유의 재치 있는 대사와 반전을 통해 무대 위의 웃음으로 재탄생한다.

'작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삶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관객이 인물들의 행동에 웃으면서도 그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 〈굿 닥터〉는 인간의 고통과 불완전함을 희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웃음을 통해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시놉시스

| 프롤로그 |

한 작가가 서재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집필에 몰두하던 그는 관객들을 발견하고 말을 건넨다. 자신의 처지와 글을 쓰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머릿속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펼쳐놓는다.

| 재채기 |

공연을 관람하던 하급 관리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는 앞자리에 앉은 장관에게 재채기를 하고 만다.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된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 가정 교사 |

여주인은 가정교사 줄리아를 불러 밀린 월급을 정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주인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제하지만, 줄리아는 부당함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다.

| 치과 의사 |

참을 수 없는 치통을 앓던 사제가 치과를 찾아오지만, 의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다. 그 대신 야심이 만만한 조수 쿠리야틴이 직접 이를 뽑겠다며 나선다.

| 늦은 행복 |

공원에서 만난 노년의 남녀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다. 두 사람은 뒤늦게 찾아온 설렘 앞에서 지난 세월과 남은 날들을 헤아린다.

시놉시스

| 물에 빠진 사나이 |

창작의 고통에 빠져 있던 작가에게 낯선 사내가 말을 건다. 돈을 주면 물에 빠진 사람을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나이를 두고 두 사람의 실랑이가 벌어진다.

| 오디션 |

배우를 꿈꾸는 소녀가 작가를 찾아온다. 잔뜩 긴장한 채 무대에 선 소녀는 준비해 온 연기를 시작한다. 그녀의 연기는 어설프지만, 눈동자는 빛으로 가득하다.

| 의지할 곳 없는 신세 |

한 여자가 은행을 찾아와 남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자의 하소연에 지배인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지만 여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 생일 선물 |

아들이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아버지는 어른으로서의 경험을 선물하려 하지만, 아들은 낯선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한다.

| 에필로그 |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작가가 다시 관객들 앞에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들려준 이야기와 그 속에 등장한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연출의 글

연출 노유림

| “삶은 모순 덩어리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삶과 타협하려한다”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야간비행, 1931

<굿 닥터>를 읽으면서 저는 인간의 삶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은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굿 닥터>는 8개의 에피소드와 인물들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여러 방식을 보여 줍니다.
그 방식들 안에서 때로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우며, 때로는 희망차고 따뜻한 순간들까지 담아내고있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것뿐인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삶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기에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시 시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쌓여 삶을 이룹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을 써 내려갑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담은 책을 써 내려가는 작가이며,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지,
그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 새로운 장면을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저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다시 사람으로 인해 삶의 이유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삶이란 어쩌면, 이처럼 모순되는 순간들까지도 끌어안으며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고,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실패한 순간에도 다시삶의 이유를 찾아 나서며,
모순적이고 이해할 수 없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저마다의방식으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굿 닥터>를 관람하시는 동안 느껴지는 많은 감정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위로가 되고, 어떤 장면에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한바탕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그 어떤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웃는 날이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써 내려갈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보다 더 멋진 끝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굿 닥터>를 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라마투르기의 글

드라마투르기 이은재

19세기 러시아, 20세기 미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슬픔은 닮아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잘 살아보려 하지만,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는 좀처럼 알기 어렵다.
“엉망이고 초라한 삶은 실패한 삶인가?” <굿 닥터>를 준비하며 오래 곁에 두었던 질문이다.
실수 앞에 주눅 들고, 잘 살아보려 했을 뿐인데 자꾸 어긋나는 사람들.
그럼에도 제 삶을 지켜내려는 사람들. 이 작품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

사회의 기준 앞에서 실패는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결함이 된다.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에게도 자신의 삶을 사랑할 이유가 남아 있는가.
2024년, 고독사한 20대 이하 청년 중 57.4%는 스스로생을 마감했다. 통계를 오래 들여다본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을까. 헤아릴 수 없기에 더욱 무력해진다.

왜 제목은 ‘좋은 작가’가 아니라 ‘좋은 의사’일까. 체호프와 사이먼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품의 인물들은 어리석고 비굴하지만, 절박함만큼은 결코 우습지 않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웃고, 웃음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불행을 고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고, 극장에 모인다.
그 시간만큼은 서로의 삶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다.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의 불행이 삶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작은 처방이 되길 바란다.
연극은 작은 목소리에도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
다음 장면이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 11. 27.

작가 — 김나영



여자 · 슈주킨 부인 · 여인 — 김소현



부인 · 소녀 — 김 효 림

주인 — 박예희



경관 — 박준성



사제 · 건달 · 아버지 — 이수아

이반 — 이준기



아내 · 직원 — 장윤빈



장관 · 남자 · 지배인

전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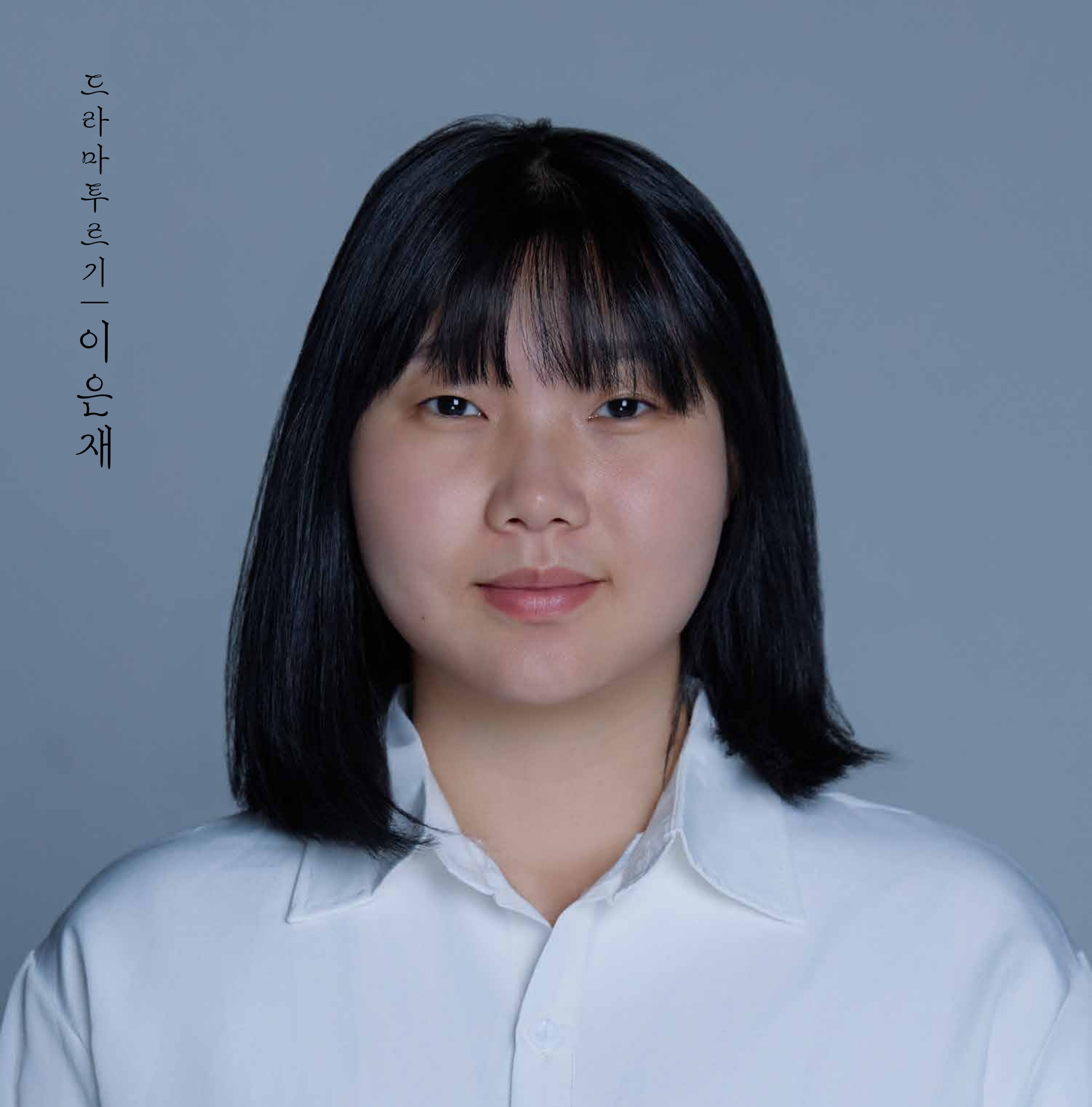
줄리아 · 조수 · 아들 — 최승아



연출 — 노 유림



드라마투르기 이은재





분장 — 김효림

무대감독 — 조 효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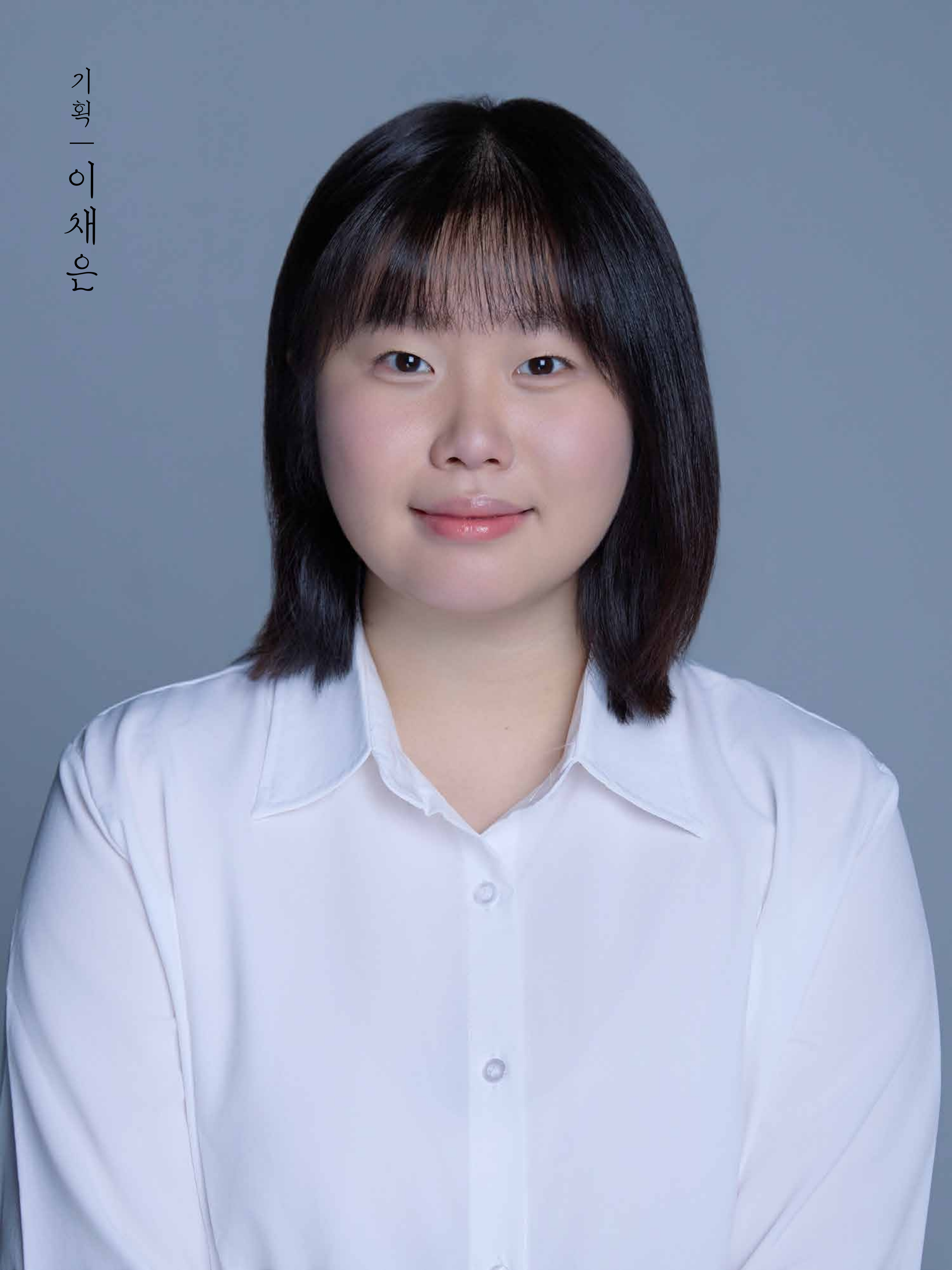
무대감독 — 김세해윤



무대감독 — 이재희



기획 — 이새은



기획 | 유새연



기획 — 이사민



기획 | 임수현



무대디자인 — 송조은



의상디자인 — 남수정



조명디자인 — 문사랑



음향디자인 — 김고은



소품디자인 — 박소정



무대감독 — 박준형



무대감독 — 심서연



기획 | 김효은



우대 어시스턴트 — 김서하



우대 어시스턴트 | 진희수



의상 어시스턴트 | 고윤서



의상 어시스턴트 | 박시진



조명어시스턴트 — 김수연



조명 어시스턴트 — 신다현



음향 어시스턴트 | 홍예슬

소품 어시스턴트 — 장현지



예매 안내사항

| 티켓 오픈 |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18시

| 티켓 마감 | 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18시

| 예매 방법 | 공연기획단 인스타그램(@smu_theair)
프로필 하단 링크 네이버폼

| 문의 | 공연기획단 인스타그램 (@smu_theair) DM

유의사항

1) 본 공연은 무료로 사전예매 및 현장 예매를 통해 관람 가능합니다.

2) 회차 당 1인 4매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3) 예매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4) 네이버폼을 통한 예매는 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18시에 마감됩니다.

5) 티켓 예매 확정 시 문자로 예매 확정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6) 현장 예매 잔여 좌석 수는 공연기획단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공지됩니다.

7) 예매 티켓 수령 및 현장 예매는 공연 시작 한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관람 안내 사항

1) 본 공연은 인터미션 없이 약 100분 간 진행됩니다.

2) 예매 티켓 수령 및 현장 예매는 공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3) 객석 입장은 공연 시작 2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3) 전 좌석 비지정제로 운영되며, 티켓 수령 시 선착순으로 좌석 선택이 가능합니다.

4) 공연 중간에 퇴장할 경우,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5) 커튼콜을 제외한 합의되지 않은 모든 촬영과 녹음은 금지됩니다.
커튼콜은 플래시 없이 촬영 가능합니다.

6) 공연 시작 전 소지하신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은 종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건물 구조의 특성상 농구장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8) 극장 내에 뚜껑이 있는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의 반입이 불가합니다.